



## 미 증시, 11 월 FOMC 안도감으로 상승

### 미국 증시 리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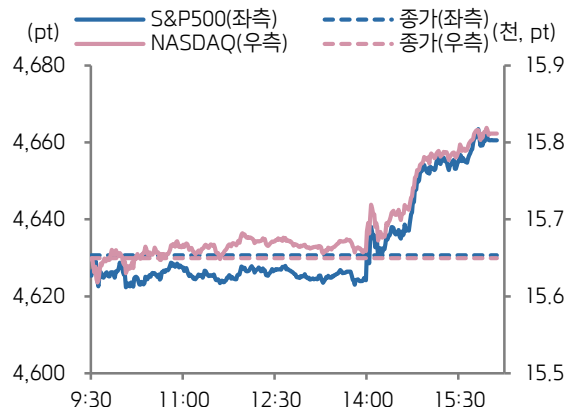
3 일 (수) 미국 증시는 지수 고점 부담 속 11 월 FOMC 경계심리로 장 초반 하방 압력을 받았으나, 11 월 FOMC에서의 시장친화적이었던 파월 의장 발언에 힘입어 반등세를 보이면서 신고가를 재차 경신(다우 +0.29%, S&P500 +0.65%, 나스닥 +1.04%).

11 월 FOMC 는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동결과 11 월 테이퍼링 시작을 발표. 다만 2022 년부터는 경제 전망에 따라 자산매입 속도를 조정한다는 파월의장의 발언에 안도하며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졌고, 이에 따라 테슬라(+3.6%), 아마존(+2.2%), 애플(+1.0%) 등 대형 기술주들의 주가 흐름이 개선됨.

개장 전 발표된 경제지표들은 전월대비 개선세를 보인 점도 투자심리에 긍정적이었음. ADP 비농업 고용(+57.1 만명, 예상 +40 만명, 전월 +52.3 만명), 10 월 ISM 서비스업 PMI(66.7pt, 예상 62.0pt, 전월 61.9pt) 그리고 공장 수주 모두 개선세를 보임. 다만 이날 발표된 EIA 원유재고가 예상보다 큰 폭 증가(+329.1 만 배럴 증가 vs 예상 +222.5 만 배럴)하면서 유가 급락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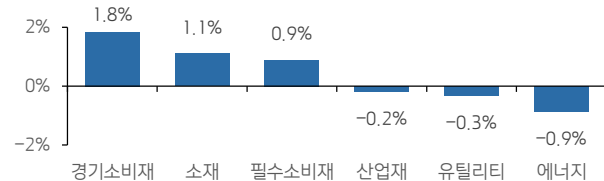
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중 CVS 헬스(+5.7%)는 코로나 검사 및 백신 매출 호조에 힘입어 EPS 1.97 달러(예상 1.78달러) 서프라이즈 기록. 리프트(+8.2%)와 T 모바일(+5.3%)도 실적 호조세에 상승. 하지만 액티비전블리자드(-14.1%)와 질로우(-23.0%)는 실적 발표 이후 급락. 액티비전블리자드는 예상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했지만, 2 개의 신규 게임 출시 연기와 4 분기 가이드언스가 예상을 하회하며 하락했고, 질로우는 실적 부진과 주택 플리핑 사업을 중단 발표에 급락.

### S&P500 & NASDAQ 일중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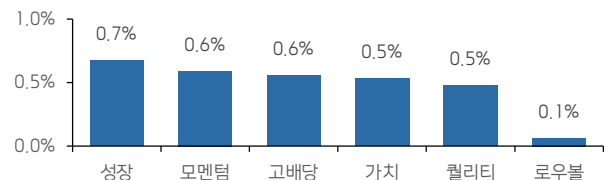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###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###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## 주요 지수

주식시장			외환시장		
지수	가격	변화	지수	가격	변화
S&P500	4,660.57	+0.65%	USD/KRW	1,181.57	+0.59%
NASDAQ	15,811.58	+1.04%	달러 지수	93.87	-0.23%
다우	36,157.58	+0.29%	EUR/USD	1.16	-0.01%
VIX	15.10	-5.8%	USD/CNH	6.40	+0%
러셀 2000	2,404.28	+1.8%	USD/JPY	114.00	-0.01%
필라. 반도체	3,590.17	+1.16%	채권시장		
다우 운송	16,860.98	-1.05%	국고채 3년	2.037	+0.5bp
유럽, ETFs			국고채 10년	2.475	+1.3bp
Eurostoxx50	4,309.61	+0.31%	미국 국채 2년	0.466	+1.6bp
MSCI 전세계 지수	749.53	+0.14%	미국 국채 10년	1.603	+5.5bp
MSCI DM 지수	3,195.67	+0.16%	원자재 시장		
MSCI EM 지수	1,263.96	-0.05%	WTI	80.12	-4.52%
MSCI 한국 ETF	79.50	-1.18%	금	1770.2	-1.07%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,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					



##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

###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

MSCI 한국 지수 ETF 는 1.18% 하락, MSCI 신흥국 ETF 는 0.47% 상승. 유렉스 야간선물은 0.43% 상승. NDF 달러/원 환율 1개월물은 1,179.98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, 달러/원 환율은 1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.

### 주요 체크 사항

1. 시장친화적이었던 11 월 FOMC 결과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심리 확대 가능성
2. 외국인들의 현선물 시장에서의 매매패턴 불확실성 해소 여부
3. 신작 모멘텀에 따른 게임주들의 주가 상승세 지속 여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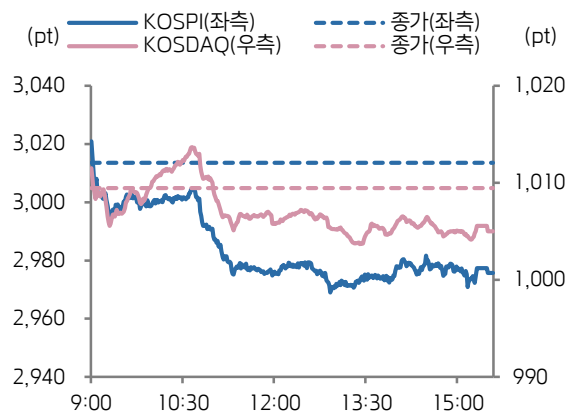
##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

테이퍼링은 기정사실화 됐음에도, 11 월 FOMC 결과에 시장이 안도한 것은 테이퍼링에 유연성을 부여했으며, 금리인상에 대해 선을 그었기 때문. 일단 연준이 발표한대로 현재 1200 억 달러(국채 800 억 달러, MBS 400 억달러) 규모로 단행하고 있는 자산매입프로그램 규모를 11 월부터 매월 150 억달러(국채 100 억달러+MBS 50 억달러)씩 축소할 경우 내년 6 월말에 테이퍼링이 완료될 수 있음. 그러나 11 월, 12 월 두 달 동안만 150 억달러씩 축소하고, 내년부터는 물가 및 경제 상황에 따라 속도에 변화를 줄 것이라는 점은 테이퍼링 종료 시점이 지연될 수 있음을 시사. 물론 유연성을 부여한 만큼, 테이퍼링 종료 시점이 6 월이나 그 이전으로 앞당겨 질 수 있다는 점은 잠재적 부담 요인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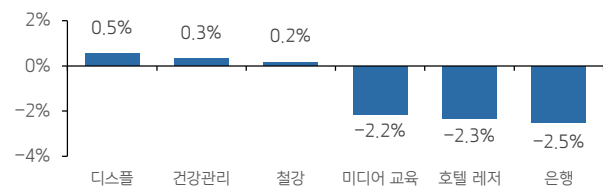
그러나 연준에서는 현재 공급난이 유발한 고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라고 평가했으며, 테이퍼링과 금리인상은 별개의 이슈라고 강조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. 이는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었던 공급난발 물가 급등 대응 목적의 조기 테이퍼링 종료 후 조기 금리인상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을 한 층 더 낮춰주는 요인. 더 나아가, 현재의 공급난은 코로나 이후 회복 및 이연 수요 급등이라는 수요가 유발한 불균형 성격이 짙음. 10 월 ISM 서비스업지수(66.7, 예상 61.9) 서프라이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, 물류대란, 병목현상에도 여전히 서비스업내 수요가 견조한 상태라는 점이 상기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요인으로 볼 수 있음.

이상의 내용을 고려 시 전거래일 11 월 FOMC 경계감 확대 속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로 1%대 조정을 받았던 코스피는 시장친화적인 11 월 FOMC 결과에 힘입어 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. 최근 외국인들의 매매패턴이 일정치 않다는 점이 수급상 불안요인이었으나, 외환시장 환경은 증시에 우호적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감안 시 이들의 매도세 강화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은 지양할 필요. 이 같은 우호적인 수급 및 대외 여건으로 반도체, 인터넷, 자동차 등 시가총액 상위 대장주들이 견조한 주가흐름을 보이면서 지수 반등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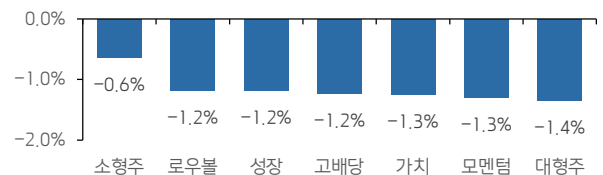
## KOSPI & KOSDAQ 일중 차트



##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



##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



자료: Bloomberg, 키움증권

자료: Bloomberg, Quantiwise, Enguide, 키움증권

### Compliance Notice

-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 -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### 고지사항

-본 조서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,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 -본 조서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, 유가증권의 종류, 종목,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. -본 조서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, 복제, 전시, 배포, 전송, 편집, 번역,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.